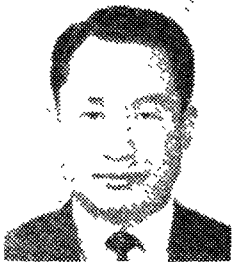


대지농원

승병선씨를 찾아서

정 영 교

<월간양계 편집부기자>



<승병선씨>

이달부터 월간양계는 두리 양계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계장을 찾아 과거의 어려웠던 점, 현재가 있기까지의 실태를 양계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로 했다 이번 호에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0,000여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승병선 사장을

찾았다. 승사장은 현재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난가의 안정과 양계가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승사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덴막의 그룬트비히가 이룩한 이상농촌을 한국에도 이룩하여 보고 싶다는 것이 그의 포부이기도 하다.

맨주먹으로 오늘을 이룩하신 승사장님의 집념어린 끈기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승사장님께서 많은 직업중에서 특별히 양계업을 하시게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의 나이가 45세이니 전쟁때 출생하여 6.25에 참전 하였고 현재에도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니 한마디로 혼란한 전황속에서 성장 하였다고 보겠습니다」라고 첫마디를 조심스레 시작한 승사장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로 부친께서 1만평 가량의 과수원을 경영하여 비교적 단탄하게 지냈으나 부친께서 반

동분자로 투옥되자 1년전 월남한 형을 찾아 승사장만 먼저 월남하게 되었다 한다. 그때가 48년 6월 6일로 승사장의 나이 18세 되던해로 곧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2년째가 되던해에 6.25가 돌발하여 부산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한다.

피난 2달만에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왜관전투에 참전하고, 전쟁의 호전으로 평안북도까지 진격하여 그곳에서 51년 12월 4일 제 4차 간부후보생에 지원, 51년 7월 7일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다.

전쟁을 치르면서 소대장, 중대장을 지냈고 제 7차 도미교육에 참가 하고, 귀국후 중포수색중대장을 1년 근무하고 국방대학원 창설시 교무과장을 역임하면서 자료 수집차 각 대학을 방문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하다가 59년 4월 전역했다. 처음 군에 입대할 때는 군에서 출세해 볼 희망이었으나 뜻대로 안되고 막상 전역하고 보니 앞일이 막연 했다고 슬피했다.

군시절 동료의 양계장 방문했던 기억으로 양계하기로 결심

그때만 하여도 자유당 말기로 사회가 문란하였고 경영자들이 인재 등용에 눈이 어두웠다면,

「돈없고 아는 사람없는 저에게는 누구하나

쳐다보지도 않았읍니다.

동창회에 나가도 군에 있을 때와는 달리 심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사회적지위가 차이나자 더욱더 배움에 대한 욕망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경영학과에 등록하고 청계천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무엇을 할까 꼼꼼히 생각하다가 문득 군시절 동료와 그의 부친이 경영하는 양계장에 놀러 가서 닭을 기르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때부터 양계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또 전부터 느꼈던 것으로 전쟁당시 살상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죄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직업을 갖는다면 평화를 위한 수 있는 직업을 택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농업분야를 생각하였는데 양계에 생각이 미치자 그 결심을 더욱 굳혔다 한다.

그길로 정농에서 양계를 하고 있는 군동료를 찾아가 양계법을 열심히 배워 어느정도 지식이 늘자 정보수집에 나서 신설동, 중앙시장, 가까운 사료상회 등지를 돌아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잘 아는 부화장에 사정애기를 하여 무감별추로 200수를 외상 구입하여 그달부터 몇가지 안되는 패물을 팔아 내자로 하고 친구들의 협조를 의자로 하여 육추를 시작하였으며 우선 여동생 방에 100마리씩 분리수용하고 20명 남짓한 앞마당에 빠다리사를 제작 설치하여 본격적인 육추를 시작하였다면서 송 사장은,

「모든 일은 그 일의 조건이 완전 갖추어 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일은 시작해 놓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완전한 조건의 일이라면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에 도전하여 극복하는 것이 남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
**밀기울 싸게 사기위해 쌀상회 돌
아다녀**
.....

당시의 사료 대책은 사료상에서 밀기울을

한 가마당 900환 하던 것이 2,700환으로 인상되었을 때 시장의 쌀상회를 돌아다니면서 쌀겨를 거두어 가마니당 800환에 구입하게 되었고 녹사료로는 신설동 경마장에서 풀을 뜯어다 썰어 먹여서 남보다 유리한 조건이었으나 양축가에게 밀기울 보다 값싼 쌀겨가 환영받자 전문적으로 쌀겨만 수집하여 사료상에 넘겨주는 중간업자가 생겨나게 되어 승씨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승씨는 중간업자에게 사정애기를 하여 사료상에 넘기는 가격인 1,600환에 인수받아 병아리에 급여하고, 남은량은 사료상의 협조를 얻어 소매가격인 2,700환에서 세금과 임대료를 뺀 2,500환에 팔게되어 가마당 900환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하여 돈버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나갔다 한다.

.....
**바쁜가운데 틈틈히 양계서적 읽
어 지식습득**
.....

새벽에 일어나 모든 준비를 하여 농고 학교에 가면 부인이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였고,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틈틈히 양계서적을 읽어 양계인으로서의 지식을 익혀 갔다.

20평의 땅에 200수 밖에 안되는 보잘 것 없는 규모였지만 승사장에게는 피와 땀의 결정이며 어느무엇 보다도 소중스러웠다 한다.

.....
첫 달수입 90,000환 얻어
.....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사육하였고, 또 앞마당의 빠다리사가 훌륭한 노천양계 역할을 하여 주어 추석무렵에 초산을 시작, 산란 첫달 수입이 90,000여환에 달했다.

그러나 애지중지하던 닭들이었지만 졸업 국가고시 때문에 완전히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머리를 박박깎고 도시락 하나로 통금임박까지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한 결과 국가고시에



<대지농원 정문입구>

정문에 들어서면 각종 구호가 시신을 끈다.

- 새농민상 ① 자립하는 농민
- ② 과학하는 농민
- ③ 협동하는 농민

무난히 합격되었다.

.....
만학도로 학구열에 불탄 대학입학

승사장은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만학도로로서는 이루기 힘든 장학생까지 되어 국가고사에 무난히 합격될 정도였으니 승사장의 학구열이 어느정도였는가 짐작할 수 있겠다.

승사장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정말로 그때는 힘들었어요.

도시락 하나로 점심에 절반, 저녁에 절반을 먹으면서 통금입박까지 공부하다가 부랴부랴 막차 타기가 바빴어요」하면서 담배불을 당겼다. 졸업을 하고난 후 다시 본격적인 양계를 시작하기 위하여 지난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다.

첫째로 후진국 축산은 넓은 벌판에서 해야 되겠다.

둘째로 4년마다의 주기적인 불경기가 오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셋째로 인가가 드문 변두리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넷째로 중심가 소비시장에서 50리 이내의 지역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강에는 교량이 4~5개 증설되어 강남과의 교통난이 없을 것이며 경인 전철도가 개설 되리라 예견하였다 한다. 위와같은 조건

을 상기하면서 강남 지역을 중점적으로 현지답사한 결과 남대문시장에서 40리 떨어진 현 위치에 62년 3월 5일 정착하였다 한다.

판자집은 현금매입하고 땅은 3년간 도지를 얻어 3년후 값았다면서,「그때의 이곳은 인가가 거의 없었고 뒷산에서 여우울음 소리가 들렸던 때었어요.」

승사장 이전에 꿈을 가지고 왔다가 실패하고 간사람이 무려 3가구나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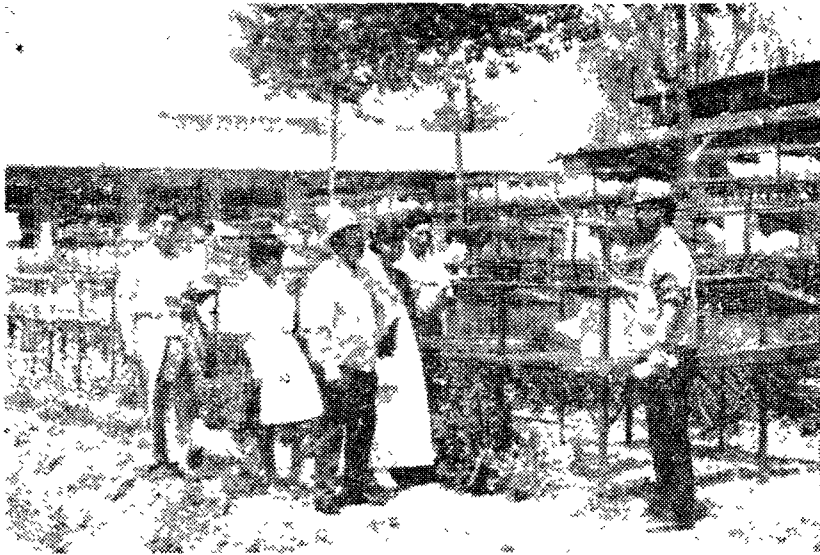
후일 안 사실이지만 여우 울음소리에 무서워한 부인의 간곡한 청에 못이겨 꿈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단다.

이러한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손수 흙벽돌을 찍어 계사를 신축하였고, 주기적인 불황을 극복하자면 최소한 1,000마리 규모는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승사장은 우선 1,000마리를 사육하기로 계획 하였다.

병아리는 잘아는 업자의 협조를 얻어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사료대책은 서울의 각 사료상회를 돌아다니면서 단미사료 가격을 세밀히 파악하여 최저가격의 사료상에서 구입하여 최고가격의 사료상에 넘겨 차익을 얻음과 동시에 비교적 헐값의 사료를 급여하였으므로 다른 업자보다 유리하게 되었다.

.....
인간의 육신 정신이 지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밤이면 달을 벗삼으며 다른 사람이 자동차로 10리를 가면 나는 강행군으로 20리를 가고, 남이 한 시간 잠자면 0재기는 30분 자겠다고 자문자답 하며 신념을 굳혔다면서「저는 인간의 육신은 정신이 지배한다고 믿고 노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라고 술회했다.



<농장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승병선씨>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게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아서 걱정이 라면서,

「도산 안창호선생은 나라가 망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었고 인간의 3대 자본은 신용, 지식, 금전으로 신용을 제일로 강조 하였습니다.」

또 드에서 주는 응자 혜택도 여러경쟁자를 물리치고 200만원을 받게 되 었으나 갑작스런 화 폐 개혁으로 20만원을 받아 요긴하게 썼다면서,

.....
오늘이 있기까지 내조의 힘커
.....

「제가 맨주먹으로 오늘을 이룩한 것은 저를 아는 모든 분의 도움도 많았지만 고생을 참고 견디며 묵묵히 뒷바라지 해 준 내조의 힘이 었 다면서 그 공을 부인에게 돌렸다.

그리고 초창기에 김영석씨의 도움은 평생 잊 지 못한다면서 그 어려웠던 때를 회상하듯 눈을 지긋이 감았다.」

.....
초창기 2~3년 제일 힘들어
.....

양계를 하시면서 심한 타격을 받았던 시련 기는 없었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이제까지 큰 시련기는 당하지는 않았지만 초창기 2~3

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심한 사료난에 허덕일때는 제주도에서 돼지 보세사료를 사올 정도였다 한다.

질병으로 곤란을 겪은 때는 없었는지요 라는 질문에는

「질병으로 곤란을 겪은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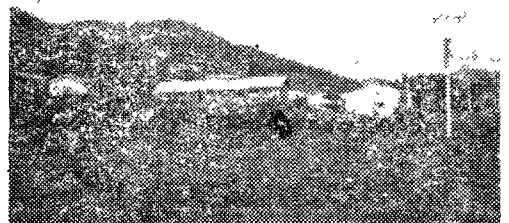
그때에는 가금협회에서 강습회를 활

발히 개최하였고, 저 자신이 열심히 배워서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운도 좋아서 큰 질병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불경기때를 큰 난관없이 극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이랄거야 없지만 저 자신이 직접 도보꾼으로 활동하였고, 추석후 난가 하락때 10년 전 초창기때와 같이 거래처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배달하여 현찰거래를 하였으므로 자금회전이 원활하게 되었고 고가로 팔 수있었던 것이 불경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술회 한다,

또 승사장은 재산 3분법에 의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금회전을 원활히하여 계획에 큰 차질없이 무난히 불황을 극복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초창기의 농장 전경>

.....
자기 자본비율 높여야
.....

그리고 한가지 염려 하는 것은 양축가에 대한 면세 혜택이 올해로 끝나므로 이에 대비하여 현재 타인자본의 비중이 많은 양축가는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한 6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내년의 경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 서 양축가의 작성을 촉구했다.

.....
**사료, 약품, 양계기구등 신용도
지키도록**
.....

마지막으로 업계에 바라고 싶은 말은 없으신지? 현대를 불신시대라고 말하지만 계란은 생명체 이므로 까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계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료, 약품, 양계기구 등에, 성분이 미달되거나 불량품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하면서 이러한 업자들의 각성으로 양심적인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믿는 상품, 신용 있는 상품을 공급하여야 자기업체의 발전은 물론 양계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난좌 두개를 내어 놓는다.

필자가 서로 비교해 본 결과 하나는 보통의 프라스틱 난좌였고 하나는 종이처럼 얇아 한 줌으로 꾸겨 쥘수가 있었다. 승사장은 이 불량품을 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국민의 중화단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이러한 비양심적인 생산자가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면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의 자주성이 우수한 민족의 구비요소를 설명한다.

첫째로 왕성한 활동력을 지녀야 되는데 여기에는 독립, 책임, 노력, 전통, 도전의 다섯가지 정신이 뒷받침 하여야 하며, 둘째로 굳건한 단결력을 지녀야 하고 여기에는 공통된 이상(사상), 공통된 목적, 공통된 이익, 상호간의 신뢰, 공통된 계획으로 뭉쳐야 될 것이며

셋째로 신의있는 국민성을 지녀야 되며 서로 믿고 일 할수 있는 국민이 되자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좋은 교훈은 많으나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이 적어 말로만 그치는 경우

가 허다한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실천하는 국민이 되어야 겠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때는 주변의 산기슭을 약 10만평정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빨리 서울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지가가 상승하여 계획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현재에는 약 4,000평의 대지에 작물중의 산란계 약 14,000수, 초생추 4,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3차에 걸쳐 10,000수정도 입식할 예정에 있다 한다.

.....
농촌운동 전개 하여 이상농촌 실현 불터
.....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의 이 지역이 개발단계에 있는데 어느정도 개발이되면 완전정리 하여 평택이나, 수원지역으로 이전하여 10만평가량의 대지를 확보, 농림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농촌을 부흥시킬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며 범 국가적인 농촌운동을 벌여 덴마크의 그룬트비히와 같은 이상을 한국에 심고 기보츠와 같은 협업농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므로 이상적인 한국 농촌을 실현해보고 싶다면 승사장은 그때를 대비하여 각종 묘목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
70년 새농민 노력상 수상
.....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 하였으며 70년 농협중앙회 선정 제5회 새농민 노력상을 수상하였을 정도로 주위에 널리 알려졌다. 초인간적인 노력으로 오늘을 이룩하고 10년앞을 설계하는 승사장은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일 할 것이다.

승사장의 신념에 찬 눈동자를 볼때 창공을 날으는 물찬 제비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하여 즐기치게 전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